

메신저 피싱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직장인 최 모씨는 출근길에 휴대폰으로 날아든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빠, 나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임시로 친구 전화를 쓰고 있어.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런데, 혹시 내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알려 줄 수 있어?” 보낸 이는 분명 딸아이의 이름으로 된 계정이었다. 최 씨는 평소 딸과 카카오톡으로 자주 대화해 왔고, 메시지의 프로필 사진과 말투도 익숙했다. 의심할 틈도 없이 “왜, 무슨 일이야?”라고 문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학교 프로그램 결제를 해야 하는데 앱 접속이 안되서 그래요. 아빠, 인증서랑 계좌 비밀번호 좀 알려줘.” ‘우리 딸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상대가 묻는 대로 정보를 알려주고 말았다. 그 후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문자 알림이 오더니 아내 연락이 두절됐다. 그제서야 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최 씨는 메신저 피싱을 당했음을 알아차렸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으면 우선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요구하는 계좌 명의가 다르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사기다. 평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가족 관계나 금융 관련 정보를 함부로 올리지 말고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서 비밀번호를 중복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눈덩이처럼 커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를 수 있다.

과거의 사기꾼들은 주로 대면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었지만 요즘 범죄자들은 인터넷에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을 수집해 표적을 정한다. 이를테면 SNS 계정을 살살이 살펴 경제·정서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골라낸다. 실제로 특정 연령층(주로 노년층이나 20대 초반 등)만 표적 삼아 문자 사기를 벌인 경우도 있었다. 자신들을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라고 사칭해 “지원금 드립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밀번호도 문제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전화번호 뒷자리나 생일 등 추측하기 쉬운 번호를 비밀번호로 쓴다. 심지어 여러 인터넷 서비스에 같은 비밀번호를 반복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만 뚫려도 연쇄적으로 탈탈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한 해

커는 공개 석상에서 “사람들은 은행 비밀번호조차 본인 생일이나 1234 같은 쉬운 조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름이나 생일 처럼 추측 가능한 비밀번호를 피하고,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휴대폰에도 화면 잠금, 개별 앱 비밀번호 설정, 2단계 인증 등 다중 보안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좋다.

혹시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도 자신을 지나치게 책망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주변에 알려야 한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심리적 회복이 빨라진다.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내 정보를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SNS에 가족이나 금융 관련 내용을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각종 사이트에 가입할 때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원격제어 앱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작은 개인정보 유출이 눈덩이처럼 커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청년 금융정책도 ‘핀셋 지원’ 필요



기지수첩
안승진
(금융부)

정부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청년주거지원3중세트’를 발표했다. ‘청년미래적금’과 ‘청년형ISA’에 이어 올해 발표된 3번째 청년 금융정책상품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생애주기별 금융자산·소득 형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각종 정책상품을 통해 청년세대에 충분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를 비롯한 영역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당초 320만명의 가입을 예상했던 ‘청년미래적금’은 1차 모집에

서 138만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연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됐고, ‘우대형’과 ‘기본형’ 간 이차율 차이도 컸다. 월 최대 50만원의 납입액도 청년 세대에게 작지 않은 액수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ISA’도 비판을 받는다. 청년형ISA는 기존 ISA계좌(종합자산관리계좌)와 달리 해외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한도 이월도 불가하다. 기존 ISA계좌와 비교해 상품 선택의 폭이 좁고, 꾸준한 납입을 요구해 자율성도 낮다. 더군다나 ‘청년미래계좌’와의 중복가입도 불가능해, 청년미래적금을 포기하고 청년형ISA를 선택할 요인이 크지 않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 ‘청년주거지원 3중세트’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월세 거주 청년이 비슷한 지출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원 범위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지

않은 4억원 미만의 비(非)아파트로 한정됐고, ‘월세와 비슷한 지출’로 제시한 납입 기간은 30년에 달한다. 소득기준도 연 7000만원으로 제한됐다.

최근 정부의 청년정책상품이 비판받는 것은 수혜 기준이 엄격한 반면, 지원 내용은 기초자산에 기반한 ‘자산형성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어서다. 고소득 청년은 저축 여력이 있어도 혜택이 작아지거나 가입이 불가능하며,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 청년은 가입과 유지가 어려워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수혜 기준에는 청년 개인의 소득만 고려하고 있어 ‘부모찬스’에 대한 논란도 뒤따른다.

정부는 최근 주택금융의 정책 기조로 ‘핀셋 지원’을 제시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정책 금융상품의 ‘사각지대’가 여전한 만큼, 정책 금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 청년들을 위한 ‘핀셋 지원’도 고려해야 할 때다.

/ asj123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4일 (음 7월 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60년생 이를 미루면 후에 큰 일이 닥쳐옵니다. 72년생 초지를 관찰하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4년생 어려움이 와도 피하지 마세요.



49년생 마음을 순하게 먹으세요. 61년생 확실히 유지한다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3년생 이성운이 불리하니 조심하세요. 85년생 직장문제는 잠시 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50년생 치우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2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져야 실패를 줄 수 있습니다. 74년생 동료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직장인은 다툼을 피하세요.



51년생 적극 적으로 나아가면 즐거운 하루가 됩니다. 63년생 기다리면 좋은 운이 옵니다. 75년생 선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87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52년생 상대방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됩니다. 64년생 현재의 고생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됩니다. 76년생 흔들림 없이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88년생 약한 자를 정벌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53년생 타인과 갈등은 원만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5년생 선불리 버티지 말고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77년생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89년생 나태한 생각은 버리세요.



54년생 만사가 손에 잡힐 듯하지만 소득은 없습니다. 66년생 억지로 밀어부치지 마세요. 78년생 조용히 심신을 연마하며 좋은 순간을 준비하세요. 90년생 기다림을 즐겨 보세요.



55년생 참을 인자를 가슴에 새겨 두세요. 67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세요. 79년생 지극히 평범하고 무난한 운세입니다. 91년생 철저한 무저항 주의로 나가기야 당신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56년생 지금은 전진할 때가 아닙니다. 68년생 뒷사람에게 실수 우려되니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80년생 지나친 자만심은 금물. 92년생 희망을 이루고, 주위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57년생 신앙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9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81년생 새로운 일에 착수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93년생 먼 곳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58년생 직장운, 금전운 모두 좋습니다. 70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82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방하게 행동하세요. 94년생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59년생 조심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71년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그날을 기다려 보세요. 83년생 조만간 좋은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95년생 노력의 결과가 점점 나타납니다.



김상회의

워렌 버핏 투자

주식시장이 불타올랐다. 대한민국 반도체주를 이끄는 쌍두마차인 삼성과 SK하이닉스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가가 사상 최고조를 찍는 기염도 토했다. 미국 주식시장의 하루 장 시장의 출발과 마감의 향방에 따라 요동치던 것이 우리 금융시장의 당연한 모양새였는데, 토종 개미투자자들의 유례없는 투자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게 만드는 진풍경도 생겼다. 여기에는 주식시장을 복돋우려 한 정부의 기조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반도체가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 탓이기도 하다. 올해 구십육세인 워렌 버핏, 사람들은 그의 주식투자 성공을 부러워하며 투자기법을 사서 읽는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도 그의 투자기법을 따라 하지는 않는다.

즉, 버핏은 가치주를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단타에 목숨을 거는 것이다. 그도 모든 종목에서 다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와 가치를 보아가며 묵묵히 기다린 결과는 연평균 30% 이상의 결실을 안겨다 주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배당수익까지 더해지며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소리까지 얻게 된다. 얼마 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버핏과의 점심’이 4년 만에 다시 열리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다. 이번에는 단 한 번의 식사자리가 무려 135억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인데, 이렇게 비싼 식사자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그의 투자 철학과 인생 조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라서 더 인기가 높다. 아시다시피 ‘버핏과의 점심’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가장 유명한 자선 경매 행사 가운데 하나다. 경매 수익금은 빈민 지원단체에 기부되어 빈곤 문제 해결과 사회적 지원에 쓰인다.

‘김상회의의 세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07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형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 스도쿠

스도쿠 3650

결합형 스도쿠 11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6	2	3	8	9	8	7
2	8	7	8	9	6	1	8	9
9	8	8	7	9	1	6	2	2
1	2	9	9	6	8	7	8	8
8	9	2	9	1	7	8	6	2
7	6	8	2	8	2	9	9	1
6	7	1	8	2	9	2	9	8
8	8	9	6	7	2	2	1	9
2	9	2	1	8	9	8	7	6

1	9	6	7	2	2	9	8	8
2	8	2	6	8	9	7	1	9
9	7	8	9	1	8	2	2	6
9	8	7	2	9	1	2	6	8
8	6	2	8	9	7	1	2	9
2	9	1	2	8	6	9	8	7
8	1	9	8	7	2	6	9	2
6	2	9	9	2	8	7	1	1
7	2	8	1	6	9	8	9	2